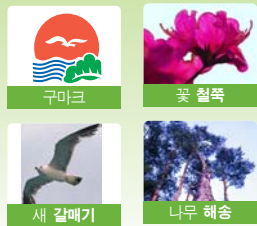


2006. 6.26(월)



<제54호>

21세기를 선도하는 희망의 주역

www.icjg.go.kr

인천



중구소식

구 정 목 표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국제관광도시 건설

구 정 시 책

1.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실현
2. 봉사과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
3.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조성
4.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5.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조성

• 발행인 | 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성진 • 편집 | 문화공보실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길 100(관동1가 9) • 전화 | 760-7123 • 팩스 | 760-7129 • 월간 | 비매품(통권54호)

“구민과 함께 중구의 희망찬 미래 활짝 열겠습니다”



5월31일 동시지방선거 결과 중구청장에 박승숙(69·전인천시의회 의장)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관련기사 2, 3면>

박승숙 당선자는 인천시의회 3선 의원이자 전인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박 당선자는 앞으로 중구에 ‘제2의 르네상스’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민선4기의 구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원에는 김철홍, 김환(이상 가선거구), 공상오, 이승언(이상 나선거구), 유건호, 김정현(이상 다선거구), 김창복(비례대표) 후보가 각각 당선되어 4년간 중구의회를 이끌면서 구민들의 민생현장을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11면> 박 당선자는 6월 말까지 중구청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아 지난 민선3기에 대한 업무과약을 하고, 7월 취임 이후 본격적인 민선4기 ‘중구호’의 선장이 되어 중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지면안내



- 중구청장 당선자 소개 2~3
- 기 획 4
- 우리동네 - 월미도 번영회장 인터뷰 등 5
- 테마 - 차이나타운 개발 2단계 사업 등 6

- 중구사랑 - 광성중학교 홀로노인결연활동 등 7
- 레저/여행 - 맛집·대청도 / 무의도 어촌체험마을 ... 8
- 포토구정 - 구정단신 9
- 생활정보 - 대체의학/이달의 수산물/추천도서 등 ... 10

- 의회소식 - 의회일정 안내 및 의정사진자료 11
- 행정소식 - 일반 행정홍보(알림마당) ... 12~13
- 이란일저런일 14
- 게시판 15~16

민선4기 중구 이괄 박승숙 당선자 인터뷰

“꼼꼼한 ‘살림행정’으로 중구의 옛명성 다시 찾겠다”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많은 단체장 중에서 전국 주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박승숙(89) 당선자. 3선 시의원, 인천시의원에 이어 인천에서 첫 여성단체장으로 뽑힌 그녀에겐 어떤 힘이 있길래 지역 주민들로부터 끝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이제 중구의 살림을 4년간 꼼꼼히 행거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박 당선자의 부드러운면서도 당당한 중구의 발전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동시에 이 구간에 노면전차 건설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화려했던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행정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구는 국가 경제의 원동력인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을 보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 시설이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은 극히 적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구에 취약한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과 구도심 재개발을 통한 녹지 및 휴식공간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집행부를 감시하던 입장에서 구정을 이끌어 갔었는데.

10년 동안 260만 인천시정을 시의원으로서 행거왔습니다. 특히 10년을 시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도시경영 마인드와 리더십을 많이 키워온 계기였습니다.

저는 5대째 중구를 기반으로 생활해온 만큼 중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행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광역시 내의 기초단체는 전체적인 광역시의 발전방안과 궤를 함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구의 현 상황을 인천시 발전방안에 반영케 하고 구(區)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시 또는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인천지역 첫 여성단체장 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호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성은 ‘살림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꼼꼼하고 부드럽게 행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인천지역 첫 여성 자치단체장이란 부담도 있지만 나름대로 청렴성과 섬세함, 포용력 및 배려 등의 장점이 행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중구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중구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을 앞으로 4년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주민이 우선인,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지역 사정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파악한 만큼 앞으로 꼼꼼한 ‘살림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행정구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숙 당선자의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한 10대 공약

- ①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추진
- ② 차이나타운내에 국내 첫 ‘중국어 마을’ 조성
- ③ 영종도 구립 종합경기장 중구 내륙 다목적회관 건립
- ④ 취학 전 아동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
- ⑤ 중구 구도심 재개발사업, 뉴타운 건설사업으로 추진
- ⑥ 구(舊)가옥 및 저소득층 화장실 문화 개선 추진
- ⑦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지정 수거제 추진
- ⑧ 영종도에 관광전문대학 유치 및 지역내 특성화 명문고교 육성
- ⑨ 학교 앞 교통사고 제로(Zero)화 운동 추진
- ⑩ 월미~자유공원(차이나타운)~인천역 해양·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 당선을 축하합니다. 소감은.

그동안 성원해 주신 중구 구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해주신 소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중구의 옛 번영기를 회복하는 주춧돌로 삼겠습니다.

중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도심 재개발사업, 교육환경 개선과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0년간 인천시정을 행거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구 발전에 전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은.

구도심 슬럼화 극복입니다. 중구는 과거의 명성을 뒤로 한 채 행정 및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도시 현안 문제가 산적한 전형적인 구도심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과거의 화려했던 중구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도심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심인프라 재배치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구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정 서비스 개선과 교육·교통·문화 분야에서도 수준 높은 콘텐츠 개발이 시급합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돼 있는 10여 곳의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초의 근대공원인 만국공원 복원사업과 인천역에서 자유공원~월미도를 잇는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여자라는 이름으로 구청장이 되기까지



“나를 만든 8할은 긍정적 사고와 인내”

중구청장 당선자
박 승 숙



나이는 숫자에 불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누구나 목표하는 말이자 누구나 이루기 힘든 말이기도 하다. 더구나 여자에게 있어서는 더 절실하지 않을까.

박승숙.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두 번 놀란다. 나이를 의심케 하는 외모에 한 번 놀라고, 3선 시의원에 인천광역시 의회를 이끌고 있던 시의장 출신이라는 점에 또 한 번 놀란다. 1937년생. 우리 나이로 보면 일흔 되신 할머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위해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동안이 아님에도 팽팽한 피부를 간직하고 있으며 고운 화장과 단정한 차림새가 상대를 푸근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깨끗한 자세와 호탕한 웃음소리에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한 눈빛이 만드는 카리스마는 그녀가 260만 인천광역시의 의장을 맡을 수 있었던 내공을 짐작케 한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전국 최고 득표율인 65.7%를 기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제 세인들은 그녀를 보고 세 번째 놀라게 됐다.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인천 지역 첫 여성단체장이 되어 앞으로 중구의 4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박승숙 당선자는 인천 서림초등학교와 인천여중을 거쳐 인천여고에 입학했으며 재학시절 학도 호국단 연대장으로 활동하면서 리더십을 키웠다.

박 당선자는 중구에서만 5대째 살고 있는 정통 중구사람이다. 전동에서 초 중 고교를 다녔고 내동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중구를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다.

인재 키운 위대한 어머니

그녀도 40대까지는 여느 여성들처럼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남편(고 임택기 인하대 교수)과 2남 4녀

의 뒷바라지를 하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생활했었다. 그러나 그녀가 40대 중반의 적지 않은 나이에 여성으로 정계에 입문한 것은 어쩌면 집안의 내력(?) 때문일지도 모른다.

남편인 고 임택기 교수(수학과)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 즉 박 당선자의 시아버지인 임광익 선생은 인천영화초등학교 교장이셨다. 두 딸들도 엄마 못지않은 커리어로 미국에서 활동중이다. 큰 딸은 NASA에서 핵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채경 박사다. 임 박사는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와 연세대를 거쳐 워싱턴 DC에 있는 ‘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이학석사와 미술학 석사에 이어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하고 미항공우주국 고다드연구소(Goddard Space Center)에서 인공위성 원격 탐사 데이터를 연구하는 브레인이다. 둘째 딸도 미국에서 환경공학박사로 일하고 있다. 사위들도 공학 박사란다.

화합의 웃음소리 커가는 중구로

교육자 집안의 며느리로, 교수의 부인으로, 똑똑한 지식들의 어머니로 살던 그녀가 박승숙이라는 정치인의 이름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녀의 남다른 가치관 때문이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소망이 컸기 때문이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보람을 찾는 것. 이는 어쩌면 대가족 집안의 살림을 맡으면서 몸 속 깊이 체득된 본능이었을지도.

“힘들수록 힘이 솟는 정신력으로 살다보니 나이를 먹을 새도 없었어요. 별도로 건강관리를 위해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없어요. 굳이 비결이라고 한다면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임하려 하고 가능하면 많이 참으려고 노력해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늘 넘치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는 질문에 그녀는 간단하게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웃 간 화합의 웃음소리가 커야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굳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림행정’도 바로 이러한 작은 믿음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저의 행정철학입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여성의 섬세함으로 중구의 살림을 꾸려 가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겸손한 말 속에서 박승숙 당선자가 10년 넘게 중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박승숙 당선자 프로필

- 인천 서림초등학교
- 인천여자중학교
- 인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예비후보
- 인천광역시의회 2·3·4대 의원, 시의회 의장
- 대한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시지회장
- 민정당·신한국당·한나라당 인천광역시지부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인천시당 수석부위원장, 중앙당 중앙위 부의장
-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 인천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 인천중부감리교회 장로
- 새얼 문화재단 후원회 부회장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2014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중구청, 대대적인 홍보 나서

중구청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를 맞이해 2014년 제17회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를 위한 분위기 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박성진 부구청장 주재로 아시안게임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구는 사회단체와 동 단위 자생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병행해 범시민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청 홈페이지는 물론 다중 이용장소 및 차량활용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모든 채널을 이용해 다양한 홍보로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을 위한 뜨거운 분위기 조성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구청과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위해 힘을 다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돌아올 유무형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의 기대효과로는 ▲6조 3천억원 이상의 생산 파급효과와 2조 7천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17만2천명의 고용기회 제공으로 경제 파급효과 기대 ▲중앙정부 지원으로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체육기



반시설과 첨단정보시설 확충으로 문화선진도시 건설 ▲국내외 방문객들에 대한 국제도시 이미지 강화로 투자유치 활성화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화합과 통합의 계기 및 남북화합의

장 마련 등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경제 사회 문화 정치분야를 망라해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모든 구민과 함께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물포항(濟物浦港)

축항과 월미도 독길이 생기지 않은 20세기 초로 짐작되는 제물포항의 전경이다. 일본은 개항이 되면서 인천이란 이름을 고집했으나 우리와 기타 외국은 총독 정치가 자리를 잡기까지 제물포라 불렀다.

먼 바다에서 보이는 제물포항은 외국의 이름난 항구처럼 아름답고 짜임새가 있었다. 항구 안에는 늘 기선과 풍선이 폭주했고 부두에는 많은 창고가 즐비했다. 바닷가 아담한 구릉 위에는 동쪽으로부터 담동성당의 뾰족집, 4각 탑이 있는 세창양행사택, 붉은 벽돌집 오례당, 중세 기 성곽 같은 존스턴별장, 우아한 바우만저택 같은 이색적인 양옥이 표석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그 아래로는 서쪽에서부터 단아한 영국영사관, 웅장한 청관의 상가가 부두와 연달아 있었다.

일본촌은 건물이 왜소한데다 색깔조차 침침해서 눈에 띄지 않았고 우리 거주지역은 언덕에 가려있었다. 그러니 바다에서 본 제물포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항구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47년에 우리의 힘으로 내항이 준공되면서 인천은 명실공히 우리의 항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 풍경에 눈 익은 몇 안남은 사람들에게는 제물포항이라는 이름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월미도 상가번영회 신찬규 회장 인터뷰

“월미도는 앞으로도 계속 변신합니다”



“많이 고생했죠. 힘은 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컸던 일 년이었어요.”
작년 4월 제7대 월미도 상가번영회 회장직을 맡아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신찬규 회장(54).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강한 어조에 묻어 있는 월미도 사랑은 파도처럼 늘 넘친다.

신 회장의 기억 속에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발간포부대의 이전이다. 그가 취임할 당시 가장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로 꼽았던 부대 이전이 확정돼 올해 말이면 완전 이전하게 된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관광특구에 걸맞지 않은 제1순위였던 것.
약8천여 평의 이전 부지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방과 관련된 사안인데다 민·관·군 삼자가 의견을 조율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과정이었으나 해결되고 나니 보람도 가장 컸다.

또한 월미도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고 고도제한이 완화돼 앞으로 월미도 성장에 힘이 될 투자 유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신 회장은 “오는 가을쯤엔 월미도 전 지역을 테마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월미도가 빈틈없는 관광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라며 “아직도 월미도는 볼거리가 부족한 편입니다. 관광특구에 걸맞게 계속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태풍에 파손된 워터스크린이 6월21일 재완공 돼 여름철 관광 특수에 한 몫을 할 예정이며 월미도 해안선을 따라 전 구간에 친수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6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의 월미도 사랑은 그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그의 눈엔 월미도가 아직도 품안에서 키워야 할 자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거리는 ‘쇼핑 1번지’ 센터는 ‘문화 1번지’



▲ 신포동센터 - 레고교실

인천의 명동하면 신포동이었다. 세월이 지나 상권의 지역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왕년의 명성은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자치센터가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지역의 ‘문화 사랑방’이

자 새로운 삶을 충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자부심이 크다.
신포동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장 김영역·이하 센터)는 다른 곳과 달리 사동(22-8)과 신생동(2-42) 두 곳에 있다. 사동 센터는 254.1㎡(77평) 규모로 2001년 3월에 개소했고, 신생동 센터는 166㎡(50평) 규모로 2005년 1월에 문을 열어 컴퓨터 교육과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시설)명	운영방법(요일 및 시간)	수강료	정원
인터넷(초급반)	월, 수(09:30 ~ 10:30)	-	10
인터넷(중급반)	화, 목(09:30 ~ 10:30)	-	10
동화구연	화, 목(16:30 ~ 17:30)	-	20
창의력개발 칼라믹스	화, 금(15:30 ~ 16:30)	20,000원(재료비)	20
토피어리	화, 목(10:30 ~ 11:30)	재료비 본인부담	20
볼링교실	화, 수(13:00 ~ 14:00)	20,000원(교구대여료)	30
레고교실 초급반(미취학아동)	월, 수(15:30 ~ 16:30)	30,000원(교구대여료)	20
레고교실(취학아동)	월, 수(16:40 ~ 17:40)	30,000원(교구대여료)	20
에어로빅	월, 수, 금(14:00 ~ 15:00)	-	20
체력단련실	년중(공휴일 제외) (06:00 ~ 22:00)	10,000원(회원제)	40여명 (1일 이용자수)

월미도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중구청은 지난 5월10일 상황실에서 박성진 부구청장과 도시국장, 월미도 진입도로변 8개 업체 대표 및 시설관리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도시경관 위해시설의 야간경관 형성 및 지역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기업의 환경개선 관심과 투자를 통한 지역사회에 공헌을 유도하기 위한 것. 중구의 야간경관계획을 설명하고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역할과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구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월미도 진입도로변 민간기업 8개 업체와 시설물

관리부서장과 사전 면담을 추진, 경관개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시설투자 및 향후 유지관리에 일부 지원방안 요구에 따른 유지관리 지원체계 확립 및 정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미도 진입로변의 야간경관은 2008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노후건물 및 담장, 사이로, 컨베이어, 돌핀, 원목데크 등 경관저해 시설물을 깨끗하게 도색하고 야간경관 조명 연출을 위해 올 12월까지 해당 민간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성장 과정에서 공동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구의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차이나타운 개발 2단계 사업추진

'자장면박물관' 건립 등 민간투자 포함 2007년까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월미관 광특구지정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을 관광명소로 조성,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중구청은 차이나타운 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까지 153억6천7백만원을 투입 지중화공사 및 보·차도 정비 등

도로 기반시설 정비 2,020m 28개 업소에 대한 중국풍 건축물 리모델링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북성동사무소 리모델링 화강석 계단, 흥단풍 식재 등 청일조계지 쉼터 조성 840m 연건평 876평의 한중문화관 건립 삼국지 벽화 설치 150m 중국풍 조형물 등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구 용자 및

민간투자를 활용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차이나타운에 있는 200여 업소에 대해 역사성 있는 중국풍 건축물을 복원 또는 보존하고 기존 상가와 노후 건축물은 신·개축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중구청이 추진하는 차이나타운 개발 2단계 주요사업은 15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건립 166평 규모의 차이나타운 야외 문화공간(화교사당 쉼터)조성 구)공화춘 건물을 활용한 자장면박물관 건립 등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해 2007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차이나타운 특구는 북성동2·3가, 선린동, 항동1·2가 일대로 114,136㎡(34,526평)의 면적에 1,054세대 2,495명(2005년말 기준)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163개 업소(중국관련업소 48개 업소 : 중국음식점 25개, 중국잡화·특산품점 15개, 화교한의원 등 기타 업소 8개)가 모여 있다.

차이나타운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차이나타운 개발에 장애가 되는 법률규제 완화로 차

는 거리와 일방통행 지정, 간판·거리 중국풍 정비, 건물 신·개축시 건축조건 완화로 처마와 장식을 갖춘 중국풍 건축물 축조 등 차이나타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차이나타운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이나타운개발위치도



중구의
과거와 현재

용동

용동은 구한말 인천부 부내면 용리 지역으로 해방 뒤 용동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유명한 용동 큰 우물이 이 지역에 있었다. 해방 뒤까지도 이 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수자원이었다. 현재는 그 자리에서 매년 용동 큰 우물제가 열린다. 한편 이 곳은 예부터 권번(기생)이 있었던 주점가로도 유명했다.

중구청은 동인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용동큰우물 먹거리의 심벌을 담은 아치게이트를 세우는 등 보다 깔끔하고 상징적인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할머니의 친구되어, 손자되어

광성中, 홀로 사는 노인과 자매결연 '호응'

광성중학교(교장 김태흥)에서 학생들이 인근에 홀로 살고 계시는 노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다.

21개 전체 학급이 참여해 매월 1회씩 자매결연을 맺은 어르신 집을 방문해 집안 청소와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는 손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광성중학교측은 홀로노인에 대한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경로효친의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으로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도원동과 송의3동 사무소에서 추천한 홀로노인과 학급이 자매결연을 맺어 손자 역할하기, 함께 대화 나누기(안부 전화), 편지 쓰고 읽어 드리기, 집안일 돕기(청소, 빨래, 설거지, 상차리기 등)와 안마해 드리기 등



다양한 봉사를 하는 것.

광성중학교 진로상담부 담당교사는

“활동 초기에는 학생들이 쑥스러워 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실수도 있었

지만 할머니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들어드리면 손자같이 생각하시고 아주 예뻐해 주신다.”면서 “때로는 할머니께서 학생들을 위해 손수 라면을 끓여주시면 학생들이 설거지를 하고,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오순도순 말동무가 되어 안마를 해드리면 즐거워하신다.”고 했다.

처음엔 한사코 오지 말라고 꺼리시던 어르신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있다고 한다.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도 전달해 외롭게 여생을 보내던 어르신들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낼 수 있었다.

광성중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과 봉사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아름다운 가게 동인천점’ 재개

배다리로 매장 이전... 주민 사랑 기대



나눔과 순환의 재 활용 운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 동인천점’이 지난 5월 13일 다시 오픈하였다.

아름다운 가게는 중고용품을 기증받아 판매해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

웃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전국 단위에서 재사용과 나눔의 문화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동인천점은 엔조이 쇼핑몰의 매장 기증으로 지난 2004년 3월 인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약 40명의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봉사로 운영되어 오던 중 엔조이 쇼핑몰의 사정으로 지난 3월 잠시 문을 닫게 되었다.

두 달간의 공백을 거쳐 이번엔 경인전철 1호선 동인천역 원편 배다리쪽 대로변에서 매장을 이전해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새롭게 열게 된 것.

아름다운 가게의 이번 재개장과 이전을 기념해 지역 주민들이 기증품을 모아주는 등 관심과 사랑은 여전했다.



맛집-대청도

100% 자연산의 힘! 대청도 홍어로 더위 싸~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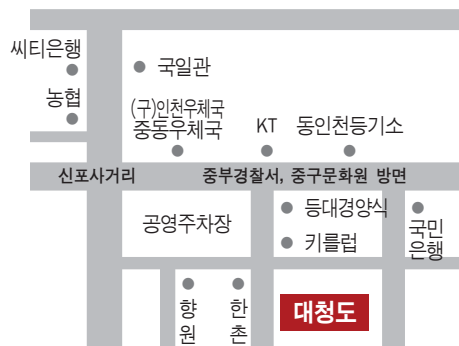
‘인천은 항구다.’

항구에 갔다면 싱싱한 회를 찾아 미식여행을 즐기는 것이 인지상정. 기왕이면 아름다운 섬에서 신선도 100%의 맛을 즐길 수 있다면 더 좋지 만 차선책도 많은 것이 인천. 100% 자연산의 신선도로 유명한 ‘대청도’ 횡집은 서해 대청도에 있지 않고 중앙동(4가 8-34)에 있다. 그러나 식탁에 오르는 광어, 우럭, 홍어는 대청도에서 갓 잡아온 100% 자연산이다. 최진주 대표(48)는 “친정집이 대청도에 있어요. 낚싯배가 두 척 있는데 하나는 홍어용이고, 하나는 광어와 우럭을 잡아요”라며 “저희 집 식탁은 양식한 회가 전혀 없어요. 간혹 잡히지 않을 경우엔 연평도산을 경매해 사오거나 여의치 않으면 아예 그날 하루 문을 닫고 쉬거든요.” 이러한 최 대표의 철저한 자연산 고집이 입소문을 타고 단골이 늘어났다. 회뿐만 아니라 김치 재료인 농산물도 시골 친척집에서 직접 공수해 온다.



결국 ‘대청도’ 횡집의 식탁은 무공해 천연 음식으로만 올려지는 셈. 또한 철따라 곁다리 음식이 바뀌면서 계절을 만난 싱싱한 맛을 즐길 수

있고 자연산이다 보니 한여름에도 비브리오팀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여름 한 낮에도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시원하다고 하세요. 이열치열로 더위를 잊는 분들이 많이 찾아 오세요.” 수족관에서 팔팔하게 살아있는 생우럭으로 매운탕이나 지리를 내놓기 때문에 시원한 맛이 남다르다.

홍어의 경우 흑산도에서도 이름값을 할 정도로 대청도 홍어는 전국에서 유명하다. 그래서 최소 이를 전에 전화 예약을 해야 한다. 낚싯배가 잡아 물으로 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문이 불여일방’라고 대청도에 가지 않고도 자연산 회들을 ‘대청도 횡집’에서 맛볼 수 있는 행운이 여기 있다.

Tip

- 영업 : 오전10시~오후10시
(단 일요일은 영업 안함)
자연산 활어회 3만원,
자연산 우럭매운탕·지리 1만원,
회 정식 2만원, 도미·농어 4만원
- 문의 : 032-765-7770

무의도에 어촌체험마을 준공

체험위주 자연친화적 시설로 여름휴가 명소 부상



중구청장은 지난 5월 12일 부구청장과 구의회위원장, 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 구의회위원장,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큰무리 대무의항 어촌체험마을’ 준공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로 관광객이 증가는 물론 관광패턴 또한 단순한 관광에서 체험 등 창조적인 관광 패턴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반 년 만에 완공된 것이다.

이 사업은 연면적 211㎡, 지상 2층 규모의 안내소와 조개모양 세족장, 목재문, 트래비스 난간 및 사각경자, 데크 등 주변 조경시설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돼 있다. 또한 햇불꽃게잡이, 조개 채취, 해안 산책 등 어촌마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는 7, 8월부터 밀려올 휴가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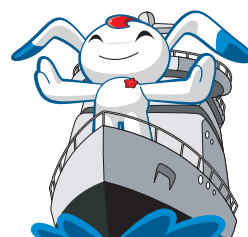
무의도는 선풍적인 인기를 보였던

영화 ‘실미도’와 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인근에 큰무리해수욕장과 하나개해수욕장이 있어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아름다운 바다와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수도권 해양 관광일번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져가는 섬 주민들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은 서울과 인천에서 약 1시간 거리로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월미도에서 여객선을 이용 남측해안도로를 따라 잠진도에서 다시 배를 이용하면 된다.

· 문의 : 중구 산업경제과(032-760-7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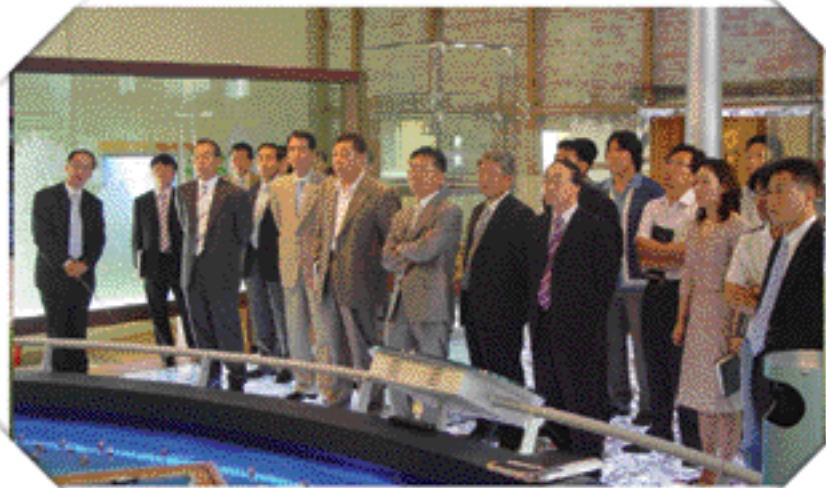


구민들이 만들어가는 포토구정



용유출장소 개청식

용유출장소가 폐쇄 3년 만에 지난 5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박성진 중구청장 권한 대행과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유동사무소 2층에 개청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설치에 따른 현장보고회

지난 5일 박성진 중구청장 권한대행과 국장, 실·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舊 18은행 건물에 마련한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설치에 따른 현장보고회를 갖고 전시시설 및 내용을 검토하였다. 전시관은 7월중에 준공식을 갖고 일반에 개방될 예정이다.



2014 아시안게임 유치기원 환경정비의 날 행사

관내 전역에서 2014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환경정비를 공무원, 환경지킴이, 환경미화원, 자생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선진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였다.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난 16일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와 지역 특성에 맞는 중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으며 복지사업의 주요방향 및 주요사업지침 제공, 종합적인 주민복지향상, 자원 활용의 효과성 증대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변화관리자 그룹 발대식 개최

박성진 중구청장 권한대행과 변화관리자(CA)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관리자 그룹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변화관리자 그룹은 혁신커뮤니케이터·주체자로서 혁신활동주도 및 혁신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행정변화와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행락철 맞이 용유해변 청결사업 추진

여름 행락철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청결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마시란해변과 을왕·왕산해수욕장을 잇는 천혜의 자연유원지를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두통약 대신 손톱 누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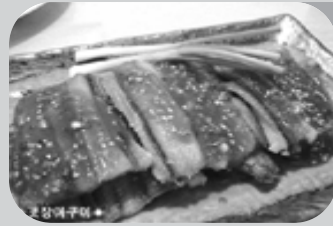
손톱 누르기 요법은 만병에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통, 어깨결림, 두통, 안정피로 등의 증상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특히 두통이 생겼을 때 즉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잘 기억해 두면 쓰임새가 많을 것이다. 먼저 손톱 옆의 외측을 강하게 자극을 준 다음 내측의 손톱 옆을 자극해 보자. 몸이 따뜻해져 안구 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손톱 누르기 요법>

- 자극을 주는 곳은 손톱의 맨 위가 아니라 손가락에서 손톱이 나기 시작하는 부분의 좌우 모서리이다. 손가락 전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자극한다. 약손가락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절대 자극하지 않는다.

- 한 곳을 10~20초씩, 다른 한쪽 손의 손톱 끝을 사용하여 아플 정도로 눌러서 좌우 손가락을 자극한다. 손톱 끝으로 자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볼펜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하되 뾰족하지 않는 부분으로 세게 누른다.

- 피가 날 정도로 힘을 가해서 누르지 않도록 하고, 엄지손가락은 호흡기계통, 집게손가락은 소화기계통, 새끼손가락은 심장이나 신장 등의 순환기계통에 효과가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 손가락을 기억해 두었다가 자극을 하면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도움말: 자연치유요법 전문가 심원기)



7월의 수산물

갯장어

갯장어에는 고도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등의 성인병에 좋으며, 여름철 원기회복에 효능이 있고 6-8월이 제철이다.

●●추천도서



생에 대한 통찰과 다양한 시선들

강산무진 김훈 / 문학동네

‘화장’, ‘강산무진’, ‘언니의 폐경’ 등에 등장하는 대기업 임원이나 ‘배웅’의 택시기사, ‘항로표지’의 등대장, ‘고향의 그림자’의 선원과 형사, 챔피언에 도전하는 복서(‘머나먼 속세’) 등 여덟 편의 소설에 제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전문적인 직업 세계의 다양함과, 그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묘사가 돋보인다. 표제작 ‘강산무진’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주변을 정리해 나가는 한 의류회사 중역의 이야기로, ‘강산무진’이란 제목은 조선 후기 화가 이인문이 그린, 가로 길이 팔 미터가 넘는 산수와 ‘강산무진도’에서 따온 것이다. 소설가 신경숙은 이 책의 추천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에게서는 한치의 물러섬 없는 완고한 격렬함과 끝도 없이 물러서는 허무한 흔들림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한다. 그 둘은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서로를 집요하게 묘사해가며 자신들의 삶을 대변할 한 문장의 말을 찾아간다. 그리하여 홀로인 것 같던 개별자들의 고독한 삶은 그의 손길을 거친 후엔 어느덧 새 의미를 부여받아 존귀하고 참다워져 있다. 그 과정을 탐독해가는 일은 결국은 무(無)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꽃혀 있는 ‘항로표지’를 응시하는 일이기도 해서 항상 기대되고 긴장된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매달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이달의 중국어 회화표현



부근에 공중화장실 있나요?

附近有公共厕所吗?
푸 진 요우 공 공 체 쉬 마?

A: 我问一下, 附近有公共厕所吗?
wǒ wènyī xià, fù jìnyǒugōnggòngcè suǒ ma?
워 원 이 시아, 푸 진 요우 공 공 체 쉬 마?
실례합니다. 근처에 공중 화장실 있나요?

B: 往前走, 有厕所.
wǎng qián zǒu, yǒu cè suǒ.
왕 치안 쯔우, 요우 체 쉬.
앞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A: 在右边左边啊?
zài yòu biān zuǒ biān a?
짜이 요우 뻬안 썬 뻬안 아?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B: 顺着这边上走, 别过马路.
shùn zhe zhè biān shàng zǒu, bié guò mǎ lù.
썬 체 뻬안 상 썬 뻬에 꺾 마 루.
이쪽 길을 따라 가세요. 길 건너가지 마시고요.

A: 好哩。谢谢
hǎo lǐ. xiè xiè
하오 리. 쉼 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일본어 회화표현

お會(あ)いしましょうか 만나볼까요?

오 와 이 시 마 쇼 우 까

金: 石川さん, 私 東京商社の金です。明日、ご都合がよろしから、一度お会いしたいんですが。
이시카와상, 와다시, 토쿄소우지노김데스. 아시타, 고쓰고우가요로시카타다, 이찌도오와이시따인데쓰가.
김: 이시카와씨, 저는 동경상사의 김입니다. 내일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石川: 明日ですか。よろしいですよ。あしただえ。よろしいです。
이시카와: 내일 말입니까? 좋습니다.

金: 何時ごろがよろしいですか。なんじ。고로가요로시이데쓰가.
김: 몇 시쯤이 좋습니까?

石川: 午後ならずっとあいていますが、高知リョウテンアイデマッス。
이시카와: 오후라면 줄곧 (시간이) 비어 있는데요.

金: そうですか。それでは、2時ごろでよろしいですか。소우데쓰가. 소레데와, 니지고로데요로시이데쓰가.
김: 그렇습니까? 그럼, 2시쯤이면 괜찮습니다.

石川: はい。けっこうですよ。하이. rpt고우데쓰요.
이시카와: 예, 괜찮습니다.

金: 場所はどこがよろしいでしょうか。ばしょ。바쇼와도코가요로시이데쇼우까.
김: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石川: それでは、ホテルのコーヒーストックでお会いしましょうか。
소레데와, 호테루노코히쑤부(호텔 커피숍)데오와이시마쇼우까.
이시카와: 그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날까요?



“늘 처음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5대 중구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선거구	소속정당	성명	학력 및 경력
가선거구	열린우리당	 김철홍 (金哲洪)	동국대 국어교육과 졸 광성중고등학교 교사 인항고등학교 교사
가선거구	한나라당	 김환 (金 桓)	동국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중구의회 전문위원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선거구	한나라당	 공상오 (孔相吾)	중구 새마을운동 지회장 중구 관광특구협의회 부위원장 북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선거구	한나라당	 이승언 (李勝彦)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 졸 신포 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인티코상사(무역업)대표
다선거구	열린우리당	 유건호 (劉建鎬)	인천전문대 경영과 1년 재학중 영종도 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신도시 소각장주민협의회 자문위원
다선거구	한나라당	 김정헌 (金正憲)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졸 영종동 청년연합회 회장 영종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비례대표	한나라당	 김창복 (金昌福)	용유고등공민학교 3년 졸 하나개해수욕장번영회장 한나라당 중앙위 인천시당연합회부회장



제150회 임시회 열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장 : 김기성)는 지난 6월 9일 본회의장에서 제150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

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용유출장소 개청식 참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기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6월 5일 오후 2시 용유동사무소 앞 광장에서 실시한 중구 용유출장소 개청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원거리 방문 민원업무를 보았으나 오늘 개청식을 통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며,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와 비판 보다는 격려와 충고로써 진정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의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반기 중구의회 의사일정

회수	회기	주요내용	비고
제151회	7. 4(화) <1일간>	제5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 부의장 선거	
제152회	7. 10(월)~7. 19(수) <10일간>	2005년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처리	제1차 정례회
제153회	9. 11(월)~9. 26(금) <16일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제154회	10. 19(목)~11. 1(수) <14일간>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구정에 관한 질문	
제155회	11. 27(월)~12. 20(수) <24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제2차 정례회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우리구에서는 통계청과 함께 매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 기간 : 2006. 6.12. ~ 7. 7. (26일간)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마다 방문하여 조사표 내용을 질문한 후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조사 대상 : 중구 관내 종사자 5인이상 모든 광업·제조업 사업체
- 개인정보비밀 보장
통계법 의거 사업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합니다.

기획감사실 ☎ 760-7064, 7068

●● 2006년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모집안내

■ 행사개요

- 행 사 명 :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 기 간 : 2006년 8월중(한국 7일 이내, 중국 7일 이내)
- 교류대상 : 중국 산둥성 위해시 환취구
- 대상인원 : 관내 중학생 15명 이내
- 추진방법
 - 숙 식 : 문화교류 청소년 상호 Home Stay
 - 교통편 : 입·출국시 항공편, 그 외 체류도시 정부차량 이용
 - 참가자 비용부담
O 본인부담 : 여권, 비자발급비 및 항공편 요금 등(약 60만원)
O 구청지원 : 문화체험 및 각종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소요비용 등(합숙활동비, 교통비, 입장료, 중식 등)
- 주요활동
 - 역사 및 문화유적지 탐방
 - Home Stay를 통한 방문국의 생활 전반에 대한 체험 활동
 - 양국 청소년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각종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

■ 청소년 문화교류 참가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06. 6. 13 ~ 6. 30
- 신청대상 : 인천 중구 관내 거주하는 중학생(연령 14~16세)
- 선발인원 : 중학생 15명 이내
- 신청방법 : 각 동 및 구청 문화공보실 참가신청서 접수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공보실 (☎032-760-7142, FAX 032-760-7129)

■ 참가자 확정 : 2006. 7. 5일한 개별 유선통보

●● 2006 월미주말축제

2006 인천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즐거운 한미당 “월미주말축제”

- 기간 : 2006년6월3일 ~ 8월26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 내용 : 참여마당, 합합공연, 청소년가요제, B-Boy공연, 월미벼룩시장, 클래식 의 향연, 열린 음악회, 주부세상, 매직쇼 등
- 문의처 :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팀 ☎760-7132

●● 2006 시정현장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우리시에서는 시정에 대한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대형건설현장과 환경관련시설 등에 대하여 일반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정현장견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시 기 : 7월~12월 ■ 대 상 : 일반시민을 비롯한 단체 등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6. 27(화)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여 시청(자치행정과) 또는 중구(자치행정과) 및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함
 - 신청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중구 자치행정과와 주소지 동사무소에 비치
 - 시청 FAX 접수도 가능(FAX번호 : 032-432-0070)
 - FAX 신청시 반드시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확인요망
- 운영

매주 목요일 오전 13:30분(시청 장미홀(지하1층)에서 출발, 13:00까지 등록)

■ 견학지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 인천대교 홍보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남동정수사업소(물홍보관) 등

※신청 및 문의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440-2427) 또는 중구 자치행정과 (☎760-7162)

●● 인천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 관람 안내 도우미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06. 6. 23 ~ 6. 30(6일간)
- 모집인원 : 2명
- 근무장소 : 인천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24-1번지(舊 18은행)]
- 자격요건(선발기준)
 - 만 18세이상 45세미만의 인천시 거주자
 - 박물관 근무 또는 관광안내 유 경험자 우선 선발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제출처(문의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팀
(☎ 032-760-7131~4)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2006.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기한 : 2006. 6. 16 ~ 2006. 6. 30
- 과세대상 : 2006.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승용차는 6월·12월(연2회), 경차·승합차·화물차는 6월(연1회)
-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방법
 - ① 전자고·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②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www.giro.or.kr)
 - ③ 인터넷뱅킹 납부제도(시중은행 인터넷뱅킹 사용)
 - 카드납부(한미비자카드 소지자만 가능) : www.goodbank.com

※문의 : 세무과 시세팀 ☎ 760-7244 / 영종·용유출장소 시세팀 ☎ 760-7755

●●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면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어 매립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합니다. (※음식물쓰레기란 동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카롭고 딱딱해서 가축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껍질, 복숭아씨, 감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의털과 뼈
- 어패류 : 조개, 소라, 멍게등 패류껍데기, 게, 가재의껍데기 (조개껍데기를 일반쓰레기로 배출시 반드시 물기를 제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등)와 한약재의 찌꺼기 (종이, 형겅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

-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최대한 빼서 음식물노란색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 배출시간 :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 동별 수거 요일

배 출 요 일	해 당 동	비 고
일·화·목요일	신도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노란색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월·수·금요일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노란색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일·수·금요일	영종지역 (금호 1, 2단지, 주공 10, 12단지, 풍림8단지, 풍림1차2단지, 삼안, 외곽전체)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
월·수·금요일	영종지역(창보 1, 2, 3, 5단지, 주공7단지, 풍림 1, 2, 3, 5, 6단지)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
일·월·수·금요일	율왕리전체(수·금요일은 미수거합니다)	노란색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수거요일 과 배출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관리과 ☎760-7422, 7424

●● 올여름 농사체험으로 값진 경험을!

중구청은 도시민과 학생들에게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하는 방식 그대로 농사를 체험하는 계절별 영농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 프로그램으로 논에 오리를 풀어놓아 벌레와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쌀생산농법도 보고 감자수확도 할뿐 아니라 가을철에는 고구마와 고구마순, 고추, 배, 포도 등을 수확하는 보람을 맛볼 수 있는 농사체험장을 준비했다. 또한 농사체험과 연계해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보람된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도시민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직접 농사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될 것으로 보인다. 농사 체험을 원하는 단체·직장·학교·유치원 등은 중구청 산업경제과(032-760-7499, 760-7375~9)로 문의하면 된다. 농사체험은 유료 또는 무료이며 농가 및 체험단체 실정에 따라 시간 또는 체험내용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이런일저런일



우리 동네 맑게 푸르게

도원동 바르게살기운동 여성위원회(위원장:김순희)에서는 지난 5월 23일에 자투리땅과 공한지에 철쭉과 장미나무 등 1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범시민 300만 그루 나무심기』 시책사업에도 기여하였고 깨끗한 동네를 조성해 나가는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해병대 인천중구전우회 자유공원서 경로국수잔치

해병대인천중구전우회(회장:오종호)에서는 수석부회장 이덕희 외 임원진의 자금으로 노약자들에게 지난 4월부터 매주 일요일 자유공원 주차장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무료급식 봉사에는 인천중구녹색어머니회와 (주)정원식품에서 도 함께하고 있다.



신포상가연합회 신포권역 활성화대책 공청회 개최

신포동의 90년대 전국 4대 상권 명성을 되찾기 위해 신포상가연합회(회장:최재권)에서는 오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신포동 일대를 '인천의 패션 1번지'와 대표적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2세에게 돌려줄 신포'라는 내용의 계획안을 지난 5월 23일 한중문화관 4층 공연장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했다.



전국자유수호옹변 중구 예선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중구지부(지부장:엄재성)에서는 지난 13일 6·25전쟁 56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안보의식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옹호 발전의지를 확산시켜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제43회 전국자유수호옹변 구예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우수상(중구청장상)은 초등부 인천공항공고등학교 구익선 학생, 일반부 이길선 님이 수상하였다.



영마루공원에서 월드컵축구 거리응원 열려

영종유소년축구단(단장:이재구)에서는 월드컵축구대회 토고와의 조별예선전이 있던 지난 13일에 영종도 영마루공원에 300인치 초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지역주민 수천 명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고, 이날 감격스런 승리에 모두 하나가 되어 영종도가 떠나갈 듯 열광하였다.



제1회 중구청장기 태권도대회

건강한 생활체육기풍조성을 도모하고 태권도 동호인간 우의와 친선을 위한 제1회 중구청장기 태권도대회가 지난 11일 도원실내체육관에서 중구생활체육협의회와 중구태권도협회의 공동주관으로 10개 단체 4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 재미난 박물관 ●

가족·연인·친구와 '호기심 천국'으로
한중문화관, 재미난 박물관 개관

한중문화관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신기하고 재미난 과학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재미난 박물관'을 개관했다. 전시테마로는 ▲ 중국 황제의 세숫대야 양쪽의 손잡이를 문질러 마찰력으로 펄림을 발생시켜 대야의 물을 솟아오르게 하여 세수 하였다는 황제의 대야 ▲ 기어와 구슬을 사용한 나의 창의력으로 발견 ▲ 자! 준비 날아보자. 거울의 대칭현상으로 자신의 몸을 반쪽만 보이면 한명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한쪽의 손과 발을 들어 흔들면 날아가는 현상 ▲ 다각형의 모양을 비눗방울을 찍으면 다각형 속에 똑같은 다각형 형성 ▲ 거대한 비눗방울이 나를 감싸는 체험 ▲ 토네이도 만들어 보기 ▲ 신나는 드럼치기 ▲ 비눗방울로 다각형 만들어 보기 ▲ 빛 탐험-빛에 반응하는 여러가지 신기한 플라즈마 ▲ 수학적, 물리적 원리를 외우지 않고 도구로 체험할 수 있는 제품 등이 있다. 재미난 박물관은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자연에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며 복잡하고 지루해 하는 수리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고 체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일 관람할 수 있으며 2, 3층 문화전시관에서 다양한 중국 기증품을 관람할 수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색적인 문화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문의: ☎ 760-7860)



※<한중문화관 7월 공연안내>

- 삶의 여유와 낭만을 주는 상설 무료영화
- 7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 2006 Summer Music Festival 공연프로그램
- 한수경의 노래교실 / 7월 8일(토)
- 마술쇼와 변검 / 7월 15일(토)
- The ACE 크로스오버댄스 / 7월 22일(토)

방문보건자원봉사대
단원 모집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병마와 싸우며 투병하시는 외로운 거동불편 환자를 도와줄 자원봉사대를 결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평소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50명
- 모집기간 : 6월 25일~7월 15일(20일간)
- 지원자격 : 중구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
- 지원서 제출
- 보건소(통합보건실) 방문·봉사활동 상담 지원서 제출
- 모집분야
- 말벗, 간병, 목욕, 가사보조 봉사
- 재활훈련, 호스피스, 이용, 미용 봉사
- 차량봉사 등
- 봉사시간 - 1회 2시간~4시간 소요
- 봉사경비
- 1일 / 10,000원의 여비 지급
- 연락처 : 중구보건소 통합보건실
김진숙(☎760-7662)

● 가스안전 ●

가스밸브는 꼭 잠그고 떠나세요!



화창한 날씨!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으로 마음이 들뜰 때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빠뜨리진 않았습니까?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LPG는 용기 밸브를 도시가스는 메인밸브 (계량기 전면에 위치) 까지 반드시 잠가 두어야 합니다.

※이동식부탄연소기[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사용요령



- 연소기의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면 열이 부탄캔에 전해져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2대의 렌지 위에 1개의 커다란 철판을 얹으면 가스용기에 열이 가해져 위험합니다.



- 사용 후 부탄캔은 반드시 분리·보관하여 가스누출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 다 쓴 용기는 구멍을 뚫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리십시오.

● 애독자 퀴즈 당첨자 발표 ●



애독자퀴즈당첨자발표

선거법 관련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지난 2005.10월호부터 2006.5월호까지 발행이 불가했던 점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부득이하게 금번 호에 애독자

퀴즈 2005년 3/4분기 추첨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인천중구소식」애독자퀴즈 당첨자 추첨이 지난 2005년 10월 18일 문화공보실에서 엄정히 실시되었습니다. 애독자 102명이 참여했으며, 102명의 정답자 중 20명이 당첨되었습니다. 당첨을 축하합니다.(쓰레기봉투 20리터 30매 지급)

※애독자퀴즈 당첨자 명단

- | | |
|--------------------------|-----------------------------|
| · 서진희 (율목동 156 극동하이츠 2차) | · 서성숙 (신항동1가 34-1 경남아너스빌) |
| · 김경인 (내동 83-6 동방빌라) | · 안소영 (신항동3가 7-235 현대아파트) |
| · 전진숙 (신생동 38-5 삼성아파트) | · 송명식 (송월동1가 11-186) |
| · 서기욱 (신생동 삼성아파트) | · 이미경 (운서동 2709-3 영종주공스카이빌) |
| · 임순희 (송월동1가 10-1 송월아파트) | · 이근숙 (신항동2가 54-5 삼익아파트) |
| · 김정분 (송월동1가 송월아파트) | · 송경호 (북성동2가 5-1 선광아파트) |
| · 최은미 (북성동2가 5-1 선광아파트) | · 박정희 (도원동 46-47 성우빌라) |
| · 최광일 (북성동2가 2-4) | · 이창식 (중앙동 4가 4-1) |
| · 황부현 (도원동 19-8) | · 이상아 (신항동2가 22번지 보우빌라) |
| · 백선희 (신항동1가 풍림아파트) | · 전명자 (전동 28-29) |

● 미발행에 대하여... ●

먼저 <인천중구소식>을 사랑하는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늘 감사드립니다. 선거법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지난 2005년 10월호부터 2006년 5월호까지 발행하지 못했던 점에 깊이 양해 바라며, 앞으로 애독자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에 부응하는 알찬 정보와 신선한 소식으로 거듭 나는 <인천중구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패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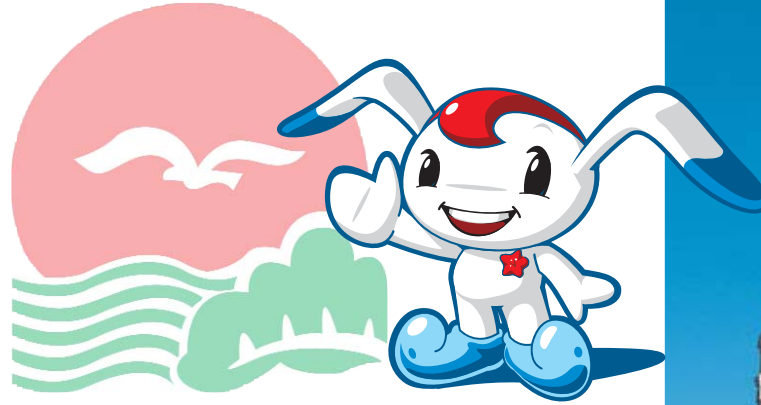


월마도 놀이시설



Asian Games
INCHEON 2014
CANDIDAT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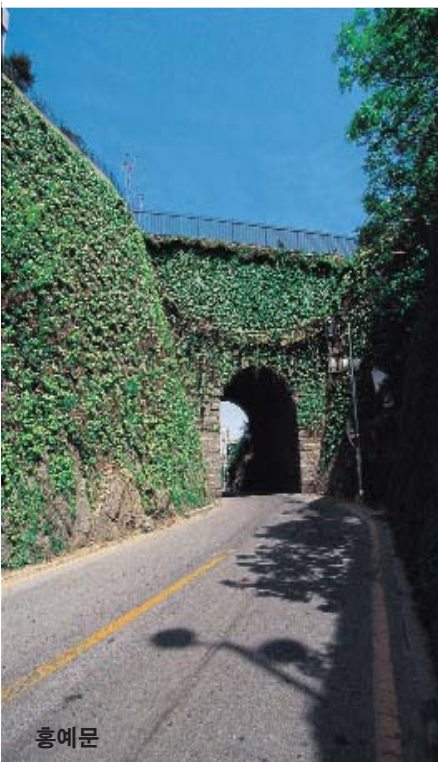
2014 아시안게임은 인천에서! 여행관광은 중구에서



인천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담동성당



홍예문

2014 아시안게임의
유치경쟁도시는 인천(대한민국) VS 델리(인도)로써
유치결정은 2007년 OCA총회(카타르, 도하)에서
인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인천항전경